

21세기 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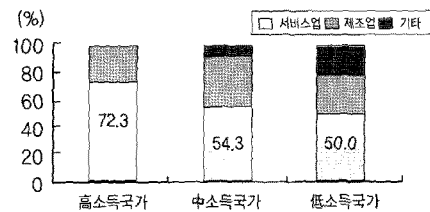
현대자동차 특허팀 / 윤승현 선임연구원

무한경쟁 시대와 지식재산권

바야흐로 21세기는 개인 간, 기업 간, 국가 간 국경없는 무한 경쟁의 시대이다. 전통적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이 산업혁명의 경제현상을 설명하던 시대를 거쳐, 이제는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미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나 중동전쟁과 테러위협에 동시에 일희일비할 정도로 지구촌화, 동조화가 진행 중이다. 즉, 국경을 넘어 날마다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고, 지구 반대편의 생산기술이 짧은 시간 내에 전이되는, 바로 지식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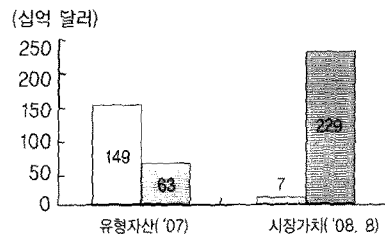
저명한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에서 제3의 물결의 사회로의 변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제3의 물결은 흔히 불리듯, 정보화 사회 같은 이름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탈대량화, 다양화, 지식기반 생산과 변화의 가속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예측했으며, 이는 바로 지식정보를 이용하고 가공하는 인력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현대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는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 사람에 관한 것임을 강조한다. 즉 '지식근로

자' 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바로 드러커인데 그는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P&G로부



자료 : World Bank

GDP 중 서비스업 비중 비교('05)



자료 : 각회사 R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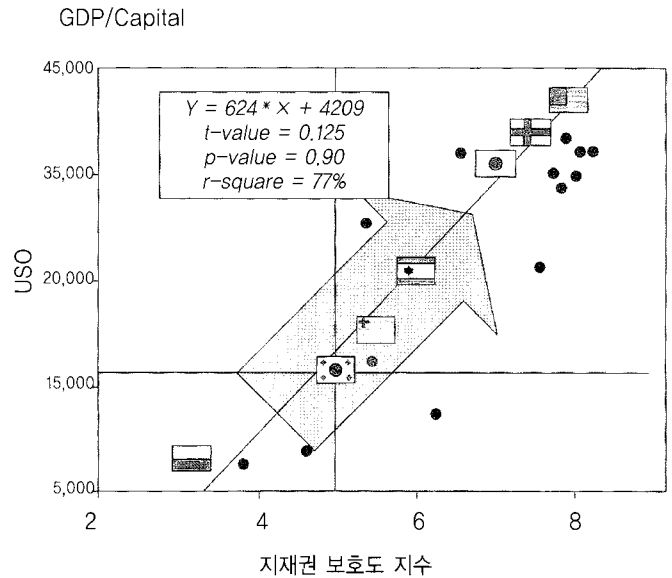
GM과 MS 비교

터 모든 것을 가져가도 좋다. 예컨대 건물을 가져가고, 제조공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다른 모든 물질적 자산을 가져가더라도 회사에 상표와 사람들만 남겨둔다면, 우리는 10년 내에 당신이 가져간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일수록 서비스산업 지향적이고 GM보다 유형자산이 열세인 MS의 시장가치가 30배가 넘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시사해 준다.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오늘날 선진국은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한계에 다다르자 지식재산권을 통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없는 현대기업은 생존자체가 불가능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의 노동, 자본 집약형 패러다임으로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게 된다. 즉 고용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주력산업이 주기적인 공급 과잉과 원가경쟁으로 상장이 지체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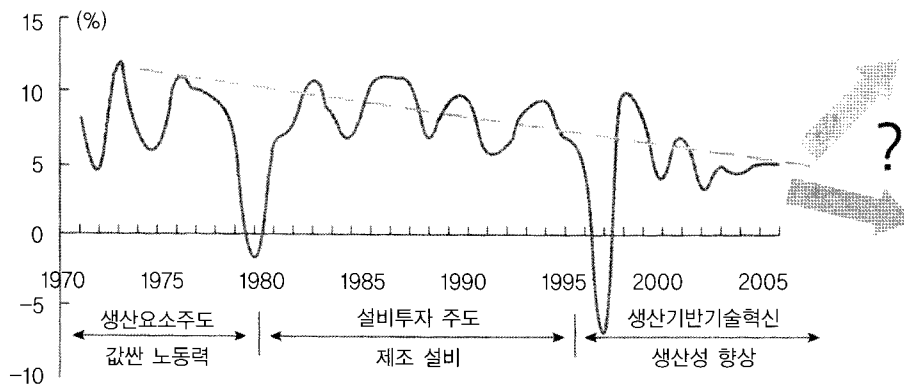
단적인 예가 이제는 국내에서 더이상 생산하지 않는 DVD플레이어다. 대당 10달러 전후인 로열티를 지불하는 체제에서는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특허권자를 이길 방법이 없다. 디빅스 플레이어 역시 20%가 넘는 로열티를 물고 있다. 게다가 앞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기술은 생산기지가 있는 후진국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 굳이 삼성과 TI의 천문학적 특허소송 사례를 들지 않아도, 매년 2조 원이 넘는 CDMA 휴대폰의 천문학적인 로열티를 거두어 들



OECD 국가 지재권 보호도와 1인당 국민소득

이는 퀄컴社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바로 “기술전쟁=특허전쟁”의 시대가 열린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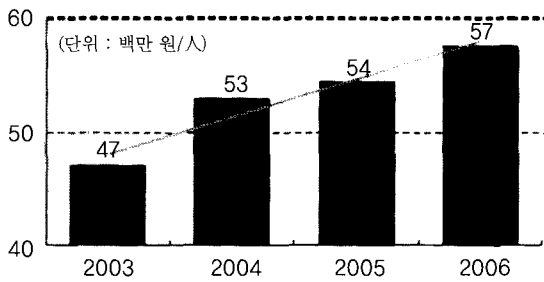
이런 상황에서는 그저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적극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 혁신화하여 영리하게 블루오션을 찾아내는 전략이 절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권리화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를 이용한 제품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우리에게 지적재산권은 그대로 주저 않을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여 미래로 도약할 것인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다.



연도별 경제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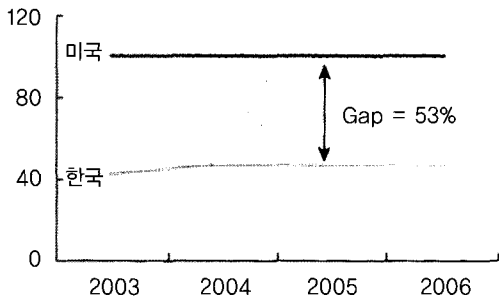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

경영학이 인간에 관한 것인 것처럼, 지식재산 역시 많은 부분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경영자와 우수한 IP 전문인력에 달려 있다. 국내외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글로벌 대기업들은 모두 지식재산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인력의 숫자 이외에도 인력의 질에 많은 부분이 좌우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은 IP인력의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으며, 지적재산 전담 조직의 보유비율은 미국의 15% 수준이고, IP인원까지 고려하면 5% 수준이 된다.



Source : OECD 국가별 데이터(http://stats.oecd.org)

지식기반 제조업 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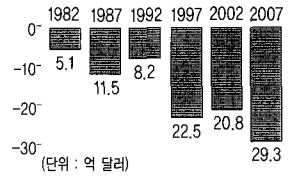


미국 기준 지식기반제조업 생산성 수준

그렇다면 우리는 태부족인 IP인력을 어떻게 양성하고 키워내야 할까? IP업무는 대부분 전문적 학습과 경험 및 판단을 요구하는 일로서, 자료화하거나 전산화, 아웃소싱으로 100% 대체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IP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선 IP인력은 기술분야의 이해도 즉 공학적 지식이 뛰어나야 한다. 이런 바탕 위에 법학적 지식이 가미된다면, 튼튼한 공합과 법학의 두 다리로 뿔 수 있는 기본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특허변

다출원 기업 등의 지식재산활동 시 어려움 (99개 업체 설문조사 : 복수 응답)

어려움	비율
① 지식재산 인력의 부족	61.6%
② 국내·외 경쟁사의 IP 정보 부족	46.5%
③ IP에 대한 경영진 인식 부족	43.4%
④ IP 보호를 위한 높은 비용	42.4%
⑤ 국내·외 법제 등 IP 정보 부족	23.2%



기술무역사 현황

* Source : 특허청, '07년

호사로 불리는 이들의 대다수가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법대(로스쿨)을 진학하는데서 증명된다. 이 두가지를 갖추면 IP인재의 기본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지식재산 전담부서 운영비용의 국제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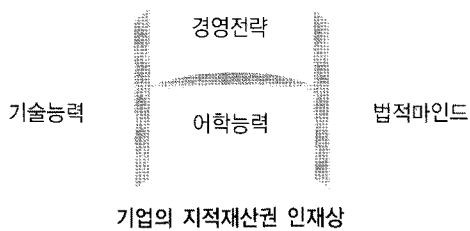
구분	한국	미국	서유럽
전담조직 보유비율	9.4%	69%	43%
전담부서의 평균인원	42명	12.5명	7.0명

* 미국, 서유럽 : 유럽특허청(2003), 한국 : 지식재산전문인력생양 연구 및 수요조사(특허청 '07)

그러면 기본 위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더 쌓아야 할까? 공학과 법학 이 두 기둥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한데 바로 경영학이다. 이는 미국의 버클리나 듀크대 등 다수 IP 교육 과정이 공대, 법대, 경영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경영학은 가교 역할을 한다. 즉, 어떠한 특허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예측과 판단이 바로 경영 마인드인데 이 경영 마인드의 습득 여부가 나중에 기업에 커다란 수익(또는 손실)을 가져다 주게 된다.

하나 더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자면, 최근에는 대부분의 정보와 소송이 외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외국어의 중요성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전구에서 진공 상태를 유지하여 법학, 공학의 두 전극 간의 경영학 필라멘트가 더 오래 빛나게 하는 것처럼 언어적 능력이 IP인력에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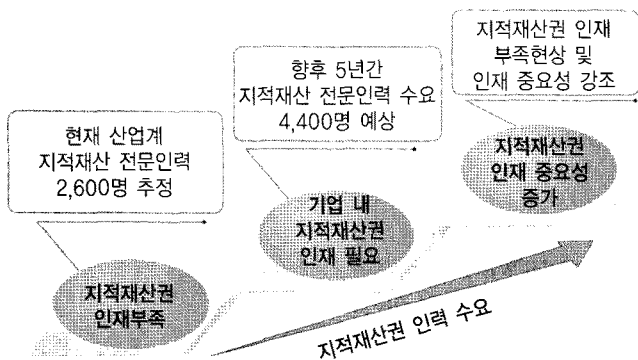
어쩌면 기업에 있어서 이상적인 IP인재란 슈퍼맨이어야 하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오랜 경험이 잘 버무려 숙성되어야 하는 김치와도 같은 Slow Food라면 현재의 IP인력 부족이 쉽게 이해될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과 일본에서는 은퇴한 IP인력이 업계를 떠나지 못하고, 선행 기술조사나 IP자문 등의 업무로 60세 이후의 삶에 더욱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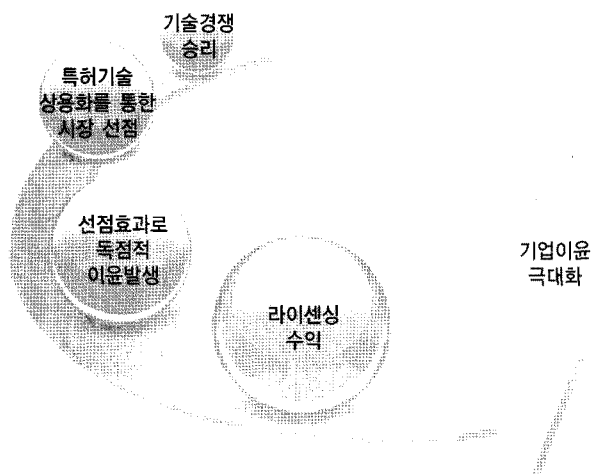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고부가가치 지식노동이 인정받는 미래 사회에 있어, 기업에는 고도로 훈련된 IP인력이 절대 필요하며 이것이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뒤쳐진 IP능력을 유일하고도 풍부한 자원인 인력을 IP 전문가로 적극 양성하므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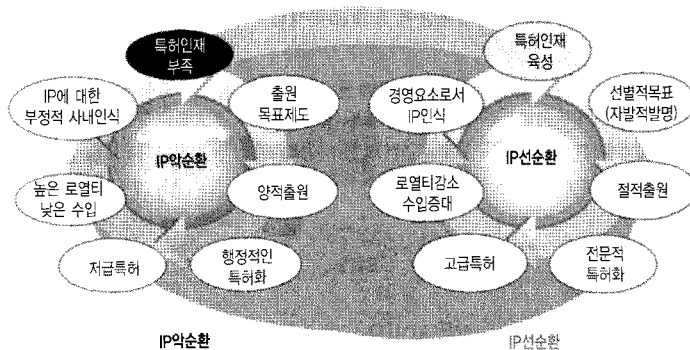
1. 기업의 지식재산 인력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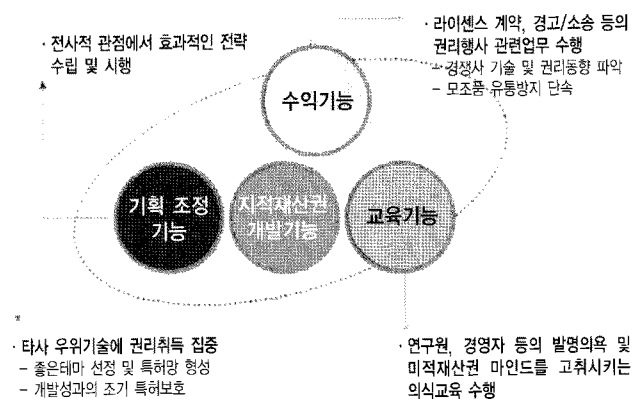
2. 지식재산권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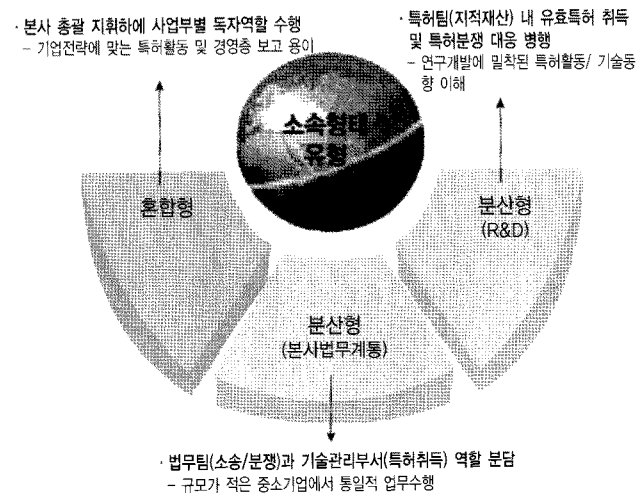
3. 기업과 지식재산 인재 순환구조



4. 기업의 지식재산권 조직(기능별)



5. 기업의 지식재산권 조직(조직형태)



본 사례는 지식재산경영(2008) 저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발명특허 2009, 6